변별력 떨어져 상위권 진학지도 '비상'

■ '쉬운 수능' 고교·학원 입시지도 고민

"수고했다 내 딸" 16일 수능시험을 무사히 끝낸 수험생들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시험장 밖으로 나서고 있다. 한 학부모가 자녀의 어깨를 감싸쥐며 격려하는 모습이 정겹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6일 치러진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 수능에 비해 대체로 쉽게 출제돼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광주·전남 일선 고교와 학원가의 상위권 학생 진학지도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주요 대학 등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내신 실질반영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번 수능의 변별력까지 떨어져 논술과 심층면접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광주·전남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논술이나 심층면접 교육 여건이 취약해 상위권 학생들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는 것.

광주 고려고 정찬성 진학실장(광주진학부장협의회 회장)은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이 쉽게 출제되면서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 과목별로 만점을 받거나 실수로 1개 틀릴 정도로 변별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 3개 영역 점수만 봤을 때 300점 만점에 290점 이상 얻은 학생이 학교별로 상당수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결국은 논술·심층면접 싸움인데 광주·전남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데다 교육여건도 열악해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진학지도를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논술·심층면접에 대비해 수도권 유명학원에서 2~3주 동안 합숙교육을 받는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이 드는 게 현실"이라며 "광주시나 광주시교육청에서 유명강사나 대학교수를 초빙해 광주·전남지역 상위권 학생들이 논술 등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 동아여고 정병기 진학실장은 "수능이 쉽게 출제돼 상위권 학생의 경우 변별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럴 경우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논술이 당락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서석고 김오자 진학실장도 "상위권 대학의 경우 이번 수능의 변별력 저하로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논술과 심층면접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그러나 광주·전남의 경우 일선 학교의 논술 교육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데다 학원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상위권 학생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논술·심층면접 비중 커질 듯
교육여건 나쁜 지역학생 불리

■200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일정

수시모집	2학기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12.17일까지 12.18~12.19
수능시험일			11.16
수능성적 통지일			12.13
정시모집	접수기간		12.21~12.27
	군별 전형 기간	가군 나군 다군	'06.12.28~'07.1.11 '07.1.12~1.22 '07.1.23~2.2
	합격자발표 등록기간 미등록충원기간		'07.2.2까지 '07.2.5~2.6 '07.2.7~2.14
	학생부 작성 기준일		'06.12.8
추가모집	전형기간 최종마감일		'07.2.17~2.28 '07.2.28

수능 광주 최연소 12세 최고은 양

"희망 주는 피아니스트가 꿈"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달하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싶어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광주지역 최연소 수험생으로 시험을 치른 최고은(12·사진) 양의 앳된 얼굴에는 당찬 각오가 묻어났다.

최 양은 지난해 2월 광주 삼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검정고시 준비에 돌입했다. 목사인 아버지 최성오(40·광주 삼도제일교회)씨의 지도 아래 그해 8월 고입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올해 4월에는 대입검정고시도 통과했다. 최양은 호남신학대 음악과에 응시할 예정이다. /서민정기자 viola@

좋은 車번호 뇌물 의혹

30만~80만원 웃돈 오가

광주시 행정감사, 대부분 고급차에 배분

단순한 숫자 배열로 외우기 쉽고 인기있는 차량번호의 대부분이 고급승용차에 집중적으로 배분되며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수십만원의 사례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상동 의원이 도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앞두고 16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004, 4444, 6666, 2000, 3000, 4000, 5000, 7000, 8000, 9000 등의 차량번호를 가진 차의 대부분이 벤츠·BMW·아우디 등 외제차와 에쿠스·체어맨·오피러스 등 국산 고급 승용차"라며 "소위 인기있는 차량번호가 고급 차량에만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인기 좋은 차량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게는 20만~30만원, 많게는 70~80만원의 웃돈이 들어간다"며 "이 같은 사실을 몇 명의 판매원들에게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각 구청이 자동으로 번호를 뽑게 하는 등 나름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명하나, 이는 일반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웃돈을 챙겨주는 고급차량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제차 판매원인 J씨도 "좋은 번호를 받으려면 얼마의 웃돈이 드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소 30만원 정도 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능시험 중 김치축제 축포 '펑 펑'

광주시, 10여분간 수십여발… 입시생·학부모들 강력 항의

광주시가 16일 '제13회 광주김치대축제' 행사 중 10여 분간 폭죽을 발사, 대입 수능시험을 치르던 입시생과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폭죽은 행사장인 염주체육관에서 수능시험 마감(오후 6시15분) 35분 전인 오후 5시40분부터 수십여 발 터졌으며, 폭음은 10여 분 간이나 계속됐다. 폭죽 소리는 수백여m 떨어진 광주시교육청까지 들려 시교육청 관계자가 급히 시에 전화를 걸어 폭죽 중단을 요청했다. 폭죽을 터트린 염주체육관 인근에는 광덕고·서석고·상무고 등의 고사장이 있다.

학부모 선모(48·광주시 서구 농성동)씨는 "아들이 시험을 잘 치르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죽이 터지기 시작했다"며 "어떻게 수능시험도 끝나지 않았는데 폭죽을 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모(41·광주시 동구 운림동)씨도 "한참 동안 폭죽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다"며 "축제도 좋지만, 수험생들은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시 교육청에 문의해 오후 7시께 폭죽을 쏘려고 했으나, 축제 기획사 직원들이 날이 어두워지자 (맘대로) 쏴버린 것 같다"며 "몇 십 발 정도 쏜 상황에서 급하게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앞서 수능일 고사장 주변에서 차량 서행 운전과 경적 자제 등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그렇게 주의 줬건만…

휴대전화 소지 3명 '무효'

광주·전남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수능을 보던 응시자 3명이 감독관에게 적발돼 무효처리 됐다.

16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고에서 2교시 수리영역 시험을 치르던 조모(2002년 고교졸업) 군의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중앙여고에서는 점심시간에 이모(2005년 고교졸업)양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목포고에서도 김모(2001년 고교졸업)군이 호주머니 안에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나원참

아내 내연남 살해 40대 검거

광주 동부경찰은 16일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정모(49·광주시 동구 대인동)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

쌍나팔

테이블 바닥에 전자칩 설치 사기도박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테이블 바닥에 전자칩을 설치, 사기도박을 벌인 조직 폭력배 홍모(30)씨 등 6명을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12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S모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전모(35)씨 등 3명을 유인, 도박판을 벌여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홍씨 등은 나무 테이블(반지름 1m 30cm) 밑바닥에 투시기능을 있는 전자칩을 설치, 상대방 카드 패를 읽은 뒤 무선으로 같은 일당(타자)에게 알려줬다고.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